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음 5월 19일)

제20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화이팅”...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

지난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직무인턴 참여자(84명), 공공기관 멘토(27개 기관)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건설기계산업 메카 도약 발판 마련

전북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문생산연구소 설립 산통부 승인 받아
국가 대형사업 참여·세금 감면 등 연구원 운영·발전 전기 마련

전북도는 (재)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 윤종구, 이하 건품연)이 지난 28일 전문연 설립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건설기계분야 산업발전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지정 전문생산 기술연구소로 승격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설립과 지원 등에 근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로서 현재 전자부품연구원과 자동차 부품연구원 등 15개 전문연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품연의 전문연 승격으로 16번째 전문연이 탄생하게 됐다.

건설기계산업계 숙원이던 건설기계 분야 전문연 설립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문생산연구소 승격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주축으로 군산시와 정치

권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2016년도부터 꾸준히 출범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군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에 반영하여 요청한 것이 건품연의 전문연으로 승격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체제로 운영해온 건품연은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 기술 등의 개발, 상담·교육 지원,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기계 분야 기술개발 및 시험 분석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여 왔다.

전문연구기관의 부재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취약했던 건설기계산업은 금번 전문연 탄생으로 명실공히 국가 기간 제조업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비 연구개발 예산확보는 물론 건설기계관련 국가 대형사업 참여와 세금 감면 등 연구원 운영과 발전에 획

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건설기계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한 총 18개 일반기계산업 중생산규모가 4번째로 큰 산업으로서, 2016년 기준 일반기계산업 총 생산액(101조 원)의 8.8%(8.8조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다.

도 성종률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재)건품연의 전문연 승격으로 국내 건설기계 스마트화 대응을 위한 지역 거점 기지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며, “전북도를 중심으로 국내 건설기계산업 활성화와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4대강 보처리 내년 6월로 확정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효력 일시정지 결정에 도교육청 “세부 내용 검토”

전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현재의 종국 결정을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재훈 기자

본사 인사

▲김기두
임:국장
명:남원주제기자

(7월 2일자)

요양시설 내 방치공간 누구나 쉴수 있는 곳으로

전주시, 복권기금 1억5000만원 지원 받아
색장동 우리요양원에 나눔숲 조성 완료
소나무 등 심어 황토길 산책로도 조성

요양시설 내 방치된 녹지공간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 나눔숲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치매노인 환자 및 중증노인환자 등 20여명이 생활하는 색장동 우리요양원의 방치된 녹지공간을 산책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해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건위원회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했다.

시는 이곳에 꽃사과와 매화나무 등 27종 나무 5,830주를 식재하고 산책로포장과 잔디광장 조성을 통해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휴게시설물 중 수목보호

탁자의 경우 휠체어높이에 맞게 제작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편리하게 이용,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했다.

우리요양원 대표는 “휴식 공간이 부족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눔숲이 조성되어 어르신들이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민선7기 진안군 이향로 군수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일로회 회원 일동